

# 대만核廢棄物 북한搬入의 問題點

1997. 2.

孫 基 雄

(교류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민족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交流協力研究室

- 目 次 -

I. 問題提起 .....	1
II. 核廢棄物 移轉契約의 背景 .....	2
1. 大韓의 立場 .....	2
2. 北韓의 立場 .....	3
III. 核廢棄物 移轉의 問題點 .....	5
1. 核廢棄物 移轉上의 問題點 .....	5
2. 核廢棄物 移轉의 波及效果 .....	7
IV. 核廢棄物 移轉에 대한 反應과 展望 .....	9
1. 韓國의 對應 .....	9
2.  주변國의 反應 .....	10
3. 展望 .....	13

## I. 問題提起

- 북한은 대만으로부터 저준위 핵폐기물 총 20만 드럼을 약 2억 3천만 달러에 반입, 저장할 것으로 알려짐.
  - 대만전력공사와 북한 국가핵안전감독위원회간에 체결된 계약(1.11)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원자력위원회(原子能委員會)가 핵폐기물수출을 승인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핵폐기물수송이 개시되어 2년내 6만 드럼, 향후 7년간 추가 14만 드럼이 북한에 반입될 예정임.
  - 핵폐기물은 선적한 때로부터 북한의 책임아래 수송되며, 핵폐기물 처리지로는 황해북도 평산소재 廢鑛이 거론됨.
  
- 핵폐기물 중 고준위 핵폐기물의 혼합 가능성, 핵폐기물 수송시 투기 및 해상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의 가능성, 북한 핵폐기물 관리기술의 불투명성 및 핵폐기물 처리지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이전은 한반도 「環境安保」에 심각한 위협이 됨.
  - 한반도 전체에 생태적·경제적·사회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의 배경과 문제점, 그것이 남북한관계 및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언급함.

## II. 核廢棄物 移轉契約의 背景

### 1. 대만의 立場

- 대만은 6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란위섬의 핵폐기물저장소(核廢料貯藏所) 등에 보관하고 있으나, 1996년 7월 이후 저장능력이 포화상태가 됨.
  - 1982년 건립된 란위섬저장소에는 약 9만8천 드럼, 원자력발전소내 임시저장소에는 약 2만4천 드럼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sup>1)</sup>
- 란위섬에 핵폐기물저장 이후 同 저장소 안전성에 대한 섬주민 - 대부분 원시 원주민 雅美族 - 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 기형아 분만, 저능아 및 암발병 증가 등으로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만정부는 2002년까지 핵폐기물 전량을 란위섬에서 반출할 것을 약속하였음.
- 대만전력공사는 북한, 중국, 러시아, 마샬군도 등과 핵폐기물 이전계약을 추진하였는 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북한과 계약체결함.
  - 러시아가 드럼당 1,800 달러를 제시한 반면, 북한은 수송비를 포함 1,150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1)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연료는 원자력발전소내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나, 저장능력은 2000년을 전후하여 포화상태가 될 전망이다.

- 대만이 북한과 핵폐기물 이전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상기 현실적 여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치적 사항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과 핵폐기물이전을 포함한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여<sup>2)</sup>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중국 견제
  - 1992년 한국의 대만단교 이후 진행된 한·중 밀착관계에 대한 불만의 간접적 표시
  - 핵폐기물 이전문제를 기회로 관계국 및 국제기구와 접촉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위상 과시

## 2. 북한의立場

- 북한은 식량난, 생필품난, 에너지난 등 복합적 경제위기 속에 김정일의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승계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외화가 절박한 북한은 핵 및 산업폐기물 수입, 문화재 밀매 등을 통해서라도 외화를 획득하고자 함.
  - 특히 북한이 과거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반입을 결정한 것은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임.<sup>3)</sup>

2) 대만경제부 張昌邦 정무차장은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李成祿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식량원조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지원 등이 포함된 경제무역관계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대만 국민당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북한간의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聯合報」, 1997.1.26.

3) 1989년 「평양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정치행사의 하나로 “자연 및 환경보호, 새 국제공보 및 통신질서와 기타 세계적 문제해결센터(제5센터)”를 개최(7.2~6)한 북한은 ‘핵물질에 의한 온갖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투쟁할 것

○ 북한의 핵폐기물반입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고려사항도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핵폐기물이전에 대한 한국 및 미국의 우려를 이용하여 북·미회담, 4자회담 등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함.
- 대만과 관계강화를 통해 중국의 對한국 밀착을 견제하는 한편, 북·일관계에서 일본의 적극적 자세를 유도함.

---

을 밝힌 바 있으며, 1993년 1월 일본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 1.7 톤을 수입한 데 대하여 '인류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들뜨우려는 범죄행위'로 규탄한 바 있음. 「조선중앙년감 199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0), p. 110; 「조선중앙년감 199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3), p. 446.

### III. 核廢棄物 移轉의 問題點

#### 1. 核廢棄物 移轉上의 問題點

- 북한반입 핵폐기물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저준위 핵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30년이하, 활성도(Activity)가 100 kBq/l(26  $\mu$  Ci/l)미만의 방사성물질을 지칭하나,4)
    - 저준위로 분류된 핵폐기물에도 반감기가 1~2백년에 달하는 코발트-60, 망간-54는 물론, 수만년에 달하는 플루토늄, 테크네튬-99, 요오드-129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수송시 해상투기 혹은 운항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만 드럼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수십회에 걸친 선박의 왕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불의의 해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핵폐기물의 해상수송에는 다중격벽, 이중바다, 강판 및 콘크리트 등의 차단벽이 설치된 특수선박이 이용되어야 함.
    - 안전성을 갖춘 특수선박이 사용되더라도 해상사고 발생시에는 심각한 해양오염이 초래되며, 북한이 일반선박을 사용할 경우 피해는 증폭될 것임.
- 
- 4) 저준위 핵폐기물에는 원자력발전소의 환기계통에서 사용된 폐필터,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온교환수지, 작업자들이 사용한 작업복이나 장갑·공구 등이 속함.

- 최소 수백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핵폐기물관리에 요구되는 관리·기술력과 의지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
  - 5 Mw급 실험용원자로를 가동·운영한 경험밖에 없는 북한의 경우, 기초분야를 제외한 응용분야에서의 원자력기술력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됨.
  - 의화획득을 위해 핵폐기물을 수입하려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의지는 기대할 수 없음.
  - IAEA의 비회원국인 북한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검증하기 어려움.
  
- 북한이 핵폐기물을 폐광에 매립할 경우, 지하수침투, 지질유동 등에 의해 방사능누출이 예상됨.
  - 특히 무계획적으로 개발된 갱도와 채굴공간에 저장할 경우 지하수 침투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핵폐기물을 폐광에 매립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독일 아쎄폐광의 경우 지질구조가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는 암염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을 이유로 1978년 폐쇄됨.
  
- 안정적 핵폐기물처리장의 건립에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북한이 2년내에 6만 트럼의 핵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핵폐기물을 폐광에 그대로 적체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2. 核廢棄物 移轉의 波及效果

- 북한이 핵폐기물 반입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는 향후 핵폐기물처리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자국산 핵폐기물의 중국 이전·처리에 관심을 가졌던 일본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sup>5)</sup>
  - 북한으로의 유해 산업폐기물 반입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 핵폐기물 처리장을 남북한 접경지역에 비밀리에 설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통일이전 동독이 서독간 국경인근 모르스레벤(Morsleben)에 저준위 핵폐기물을 매립하여 문제를 야기한 바 있음.<sup>6)</sup>
  - 핵폐기물처리장의 지상위치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다소 원거리에 있다고 해도 북한의 막장면이 수직갱으로부터 수십 km 이상 뺀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sup>7)</sup>
  
- 대만으로부터 반입한 핵폐기물에 북한이 핵개발과정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혼합하여 핵개발내역을 은폐할 가능성도 있음.

5) 일본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소로 중국에 관심을 가졌으며, 1990년 11월 중국의 산시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연구를 수행할 지하시설 건설에 합의한 바 있음. 김범철·이승환 (역), 「지구환경보고서 1992」 (서울: 뜨님, 1992), p. 114.

6)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과정연구 93-V」 (서울: 통일원, 1993), pp. 584~585 참조.

7)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의 대규모 탄광들의 막장면은 수직갱으로부터 약 12 km까지 뺀어 있으며, 막장이 바다밑까지 옮겨지면 그 거리는 20 km까지 달한다고 알려짐. 김치승, “갱내환경과 건강보호분야의 발전전망,” 「과학의 세계」 2 (평양: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3), p. 21.

- 이 경우 북한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 확보작업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 IV. 核廢棄物 移轉에 대한 反應과 展望

### 1. 한국의 對應

- 한국정부는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따른 해양오염 가능성, 안전관리의 불투명성, 매립지의 부적합성 등과 그 파급효과를 감안, 핵폐기물 이전계약의 즉각적 철회를 대만과 북한에 촉구함.
  - 정치·경제적 외교수단을 동원, 핵폐기물이전의 저지방침을 천명함.
  - 미국, 중국, 일본, IAEA 등과 협의하여 대만 및 북한에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 나가기로 함.
  - 민간단체들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견지함.
  
- 대만과 정식외교채널을 갖고 있지 못한 정부는 주대북 한국대표부를 통해 대만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공개할 것을 요청함.
  
-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이 한·미에 대한 북한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음을 미국에 환기시켜 미국의 對대만 및 對북한 압력행사를 유도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함.

## 2. 주변국의 反應

### 가. 일본

- 일본은 벵푸에서 개최(1.25~26)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대해 한국과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함.
  - 반입저지를 위해 민간회사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함.
  - 일본의 입장표명에는 ① 핵폐기물수송시 해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 ② 북한·대만간 경제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對북한 영향력 약화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본은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을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 핵폐기물의 중국 이전을 고려하는 등 기본적으로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한편, 일본의 민간단체 「시민원자력자료정보실」 등은 핵폐기물이전 반대성명을 내고 한국의 민간단체와 협력할 것을 밝힘.

### 나. 미국

-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대해 초기 신중한 자세<sup>8)</sup>를 취했던 미국은

---

8) 미국은 대만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기술을 이전하고 핵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핵폐기물중 일부를 감독·통제하고 있음. 한편 대만은 북한과의 핵폐기물이전계약 체결전에 미국에 사전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짐.

“① 핵폐기물의 이전 및 매립은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안전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② 미국정부는 핵폐기물이전으로 인해 한반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적 재난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를 주시하고 있으며, ③ 대만이 핵폐기물이전에 관해 관계 당사국들과 협의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언론성명문을 발표함(1.29).<sup>9)</sup>

- 미국의 입장표명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① 핵폐기물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과 대만간 관계가 악화될 경우,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해가 손상될 수 있으며,
- ② 북한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확보가 어렵게 되어 이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경수로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방지하고,
- ③ 핵관련 사안에 대해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하려는 의도임.

#### 다. 중국

○ 중국은 1984년 이후 금전적 대가나 자국 핵사업에 대한 원조를 조건으로 사용후 연료나 핵폐기물을 수입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며, 통일 후 자국영토가 될 대만에서의 핵폐기물반출이 國益에 상치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핵폐기물이전에 대해 초기에 신중한 자세를 취함.<sup>10)</sup>

- 그러나 핵폐기물이전이 국제문제로 대두되자 중국은 대만의 행동이 중국과 관련 국가간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비난

9) 「동아일보」, 1997.1.30.

10) 여기에는 의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고려도 작용되었다고 판단됨.

하고<sup>11)</sup>,

- 핵폐기물 처리능력이 없는 북한으로의 반출이 주변국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1.30).<sup>12)</sup>

-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표명에는

① 대만이 국제외교무대에서 주권국가로서 대화의 상대로 인식되는 것이 “하나의 중국”원칙에 배치되며,<sup>13)</sup>

② 북-중간 우호관계를 대만이 북한과 핵폐기물이전을 포함한 경제-무역관계 강화를 통해 훼손할 수 있으며,

③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이 역내 사안에 방관할 수 없고(특히 미국이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개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④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등 근래 환경문제에 적극 관심을 표명한 중국이 해상오염 가능성이 있는 핵폐기물 이전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됨.

## 라. 관련 국제기구

○ IAEA는 핵폐기물이전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공감하고, 同 문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핵안전조치 및 원자력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11) 이와 관련, 중국은 현재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에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전제하고, ‘대만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조국을 분열시키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함.

12) 「한겨레신문」, 1997.1.30; 「서울신문」, 1997.1.31; 「경향신문」, 1997.1.31.

13) 이와 관련, 중국은 ‘대만의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은 민감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관련국가들은 이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함.

다각적으로 검토중임을 밝힘(2.1).<sup>14)</sup>

- 핵폐기물의 군사적 전용방지와 북한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표명함.
- 전문가회의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연료 안전관리 협약」(안)의 연내상정을 협의중이며, 핵폐기물의 이전원칙, 저장·처분상의 안전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화를 검토중임.

○ Green Peace는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한국과 대만 환경단체들의 저지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핵폐기물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2월 14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펼쳐자는 한국 「환경운동연합」의 제의에 대해 동참의사를 밝힘.

### 3. 展望

○ 대만은 한국정부의 핵폐기물이전계약 철회요청에 대해 同 사안이 상업적 계약임과 한국이 비당사국임을 이유로 한국정부의 불개입을 요구함.

- 대만은 국내 민간환경단체들의 계약 철회요청도 묵살하였으며,
- 同 사안이 국제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핵폐기물의 1차분 선적을 2월내에 실시하는 등 수송계획을 앞당겨 실행할 의사를 보임.<sup>15)</sup>
- 한편, 대만의 「대만환경보호연맹」(TEPU)은 자국 핵폐기물의 수출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한국 민간단체와 협력할 것을 밝힘.

14) 「조선일보」, 1997.2.2.

15) 「中國時報」, 1997.1.28.

- 그러나 중국, 미국, 일본, IAEA 등으로부터 핵폐기물이전에 대한 국제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대만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함.
  - 대만은 핵폐기물 반출이전에 북한 핵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핵폐기물 수송시 IAEA의 감시를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 한국과 同 문제에 관한 우호적 협의를 환영한다고 밝힘.
  - 이는 중국의 외교공세에 맞서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을 벌리고 있는 대만이 국제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핵폐기물수출을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임.
  
- 북한은 한국의 핵폐기물이전계약 철회요청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간섭하기 전에 자국의 일이나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핵폐기물반입의 강행의사를 밝힘.<sup>16)</sup>
  
- IAEA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연료 안전관리 협약」(안) 채택이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핵폐기물을 수출하려는 대만의 이해와, 계약철회에 대한 가시적인 반대급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벼랑끝 외교”를 전개하려는 북한의 정책이 결부되어 핵폐기물이전이 강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문제화된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이 조기에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수출승인을 위해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대만 행정원 원자력위원회

---

16) 「세계일보」, 1997.1.19.

의 안전검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대만은 처리장의 안전여부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국제여론의 추이를 관망할 것임.

- 북한의 경우, 계약의 실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계약의 무산에 대비하여 한국 및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확보하려 할 것임.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 〈연구보고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 96-29 한·중 안보협력 방안 연구

〈통일정세분석〉

- 96-01 북한의 승계정치 동향: 2·16 생일행사를 중심으로
- 96-02 중국의 대내정책과 대대만정책 전망: 제8기 전인대 4차회의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96-03 북한의 대미·중정책 현안과 전망
- 96-04 주변4국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 96-05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 96-06 김일성 사후2년: 북한정세의 동향 및 전망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분석
- 97-01 대만해폐기물 북한반입의 문제점

〈世界主要事件日誌〉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96-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0. 1 ~ 1996.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論叢〉

-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統一研究論叢 第5卷 2號(1996.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통일문화시리즈〉

-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

---

대만核廢棄物 북한搬入의 問題點

統一情勢分析 97-01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交流協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4726, FAX: 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7년 2월 일

發行日 1997년 2월 일

---

---